

한국의 팬지꽃
산업화와 아픔
여성 그리고
여성 노동자

Sorrow with Pansy
Korea's industrialization, pain,
women, and female workers

2005. 12. 15 ~ 2006. 2. 20

장소 여성사전시관
주최 여성가족부 | 여성사전시관
주관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인사말

2005년도를 마무리하며 여성사전시관의 기획전, '팬지꽃 아픔 한국의 산업화와 여성 그리고 여성 노동자'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사회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여성 및 여성 노동자들이 사회라는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호명되었고 또한 그 속에서 여성 및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과 모습으로 형성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및 여성 노동자들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당당한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야기된 여성 노동자들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 역시 한국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러한 여성 및 여성 노동자들의 역할을 반추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2005년 12월

여성가족부 장관 **장 하 진**

Greeting

It is our honor to present the last exhibition of the 2005. The purpose of the show is to reveal how Korean women and the female workers have been interpellated during the course of industrialization in Korean society, and to represent how they have developed their identity.

It is no doubt that women and female workers had taken a subjective role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of Korea. Their dire protest for the democratization has left an indelible mark in the contemporary Korean history. Nevertheless, such dire efforts have not received proper attention or treatment so far. This exhibition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such important contribution of female workers. I sincerely hope for your continuous interest in this exhibition. Thank you.

December, 200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er Jang, Ha-jin